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	 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.
		배포 일시	2016.11.18.(금) 총 4 매(본문 4)	
국토교통부	철도운영과 철도건설과	담 당 자	• 철도운영과장 주종완, 사무관 김광림 • 철도건설과장 고용석, 사무관 임승규 • ☎ (044) 201-4636 / 201-3961	
한국철도 시설공단	홍보실		• 실장 임연민, 부장 이현철 • ☎ (042) 607-3071, 3082	
(주)SR	홍보실		• 실장 배진원, 팀장 방종훈 • ☎ (02) 6484-4200, 4220	
보 도 일 시		2016년 11월 21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1.20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2016. 12. 9, 드디어 「수서고속철도」가 개통됩니다.

KTX ↔ SRT 고속철도 본격 경쟁체제 돌입

11월말까지 종합시험운행과 운행준비를 마치고 차질없이 개통 예정

- 국토교통부(장관 강호인)는 12. 8.(목) 개통행사 이후, 12. 9.(금)에 수서고속철도를 개통한다고 밝혔다. '11. 5월 공사에 착수한 수서고속철도는 경부·호남고속선을 통해 서울, 대전, 대구, 부산, 광주 등 주요 대도시를 SRT* 고속열차로 연결하게 된다.

* Super Rapid Train의 약자

< 수서고속철도(SRT) 운행계획 >

구분	수서~부산	수서~광주송정	수서~목포
운행거리	400.2km	289.8km	356.6km
운행횟수	80회	22회	18회
평균소요시간 (최단시간)	2시간 30분 (2시간 9분)	1시간 40분 (1시간 28분)	2시간 17분 (2시간 6분)
운임(할인 전)	52,600원	40,700원	46,500원

- 수서고속철도 개통은 단순히 수서-평택 구간 건설공사가 완료된 것을 넘어서서 정책적·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, 우리나라 교통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.

① 먼저, 수서고속철도 개통을 계기로 우리나라 117년 철도역사 최초로 간선철도에 경쟁체제가 도입된다. 지난 '13년 출범한 (주)SR(주식회사 에스알)이 국민들에게 더 나은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코레일과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다.

- 실제로, (주)SR이 10% 싼 운임, 차별화된 승무 서비스 등을 준비하고 있고, 코레일은 할인제도 강화, 운행구간 조정을 추진하는 등 철도 사업자 간 서비스 경쟁은 이미 시작되었다.

< '16년 하반기에 발표된 (주)SR vs 코레일 경쟁전략 현황 >

분야	(주)SR 	코레일 
운임	기존운임 대비 10% 인하, 운행 중지 시 운임 10% 배상, 출발 후 5분 내 온라인 반환 등	마일리지제도 도입(5~10%), 365할인 확대(최대 20% → 30%) 등
서비스	WIFI 확대, 승무원 호출기능, 전좌석 콘센트 설치 등	전좌석 콘센트 설치 예정
기타	사회적 약자칸(좌석넓이 10% ↑) 운영 등	광명역 셔틀버스(사당, 영등포) 서울·용산역 혼합정차 등

② 수서고속철도는 기존 서울역 중심의 철도 영향권을 수도권 동·남부 까지 확대하여 별내, 동탄 등 신도시와 전국을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연결하게 된다. 이에 따라 보다 많은 국민들이 새롭게 고속철도 서비스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③ 수서고속철도로 인해 수도권 내 선로용량 부족 문제가 해소되고 고속 열차 투입이 획기적으로 증가*한다. 이에 따라 주말이면 좌석을 구하기가 힘들었던 상황이 개선되고, 도로교통량도 크게 감소** 하여 전국 각 지역 간의 이동이 훨씬 수월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.

* 운행횟수 : 경부 축 183회 → 256회, 호남 축 86회 → 128회, 43% 증가(주말기준)함.

** 연간 서울-대전 61만 명, 서울-광주 38만 명 등이 도로에서 고속철도로 전환→ 고속버스 통행시간 절감으로 연 200억 원 편익 발생함.(한국교통연구원, '16. 8.)

□ 수서고속철도는 국내 최장대 터널인 율현터널을 비롯, 전체 구간의 93%에 해당하는 56.8km가 터널로 이뤄져 있어 국토교통부와 사업 시행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터널구조물의 안전에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며 건설 공사를 진행했다.

○ '14년 10월부터 3개월 간 땅꺼짐 현상(일명, 싱크홀)을 안전점검하고, 주요 공사가 완료 단계에 이르러서는 '민관합동 안전점검'(16년 1월), '터널 전 구간 안전점검'(16년 3~6월), '개통 전 사전점검'(16년 4월, 8월) 등 시설물 안전을 수차례에 걸쳐 면밀히 검증했다.

○ 시설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치밀한 노력의 결실로 올해 8.8일 착수한 종합시험운행 과정에서 기존 경부·호남고속철도 개통준비 당시보다 훨씬 안정적*으로 시설물 검증을 완료하고 11월 1일 영업시운전에 착수할 수 있었다.

* 108개 시험항목 모두 적합, 보완사항 6건 도출되어 모두 조치완료 하였다.

○ 또한, 운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비상상황을 고려하여 율현 터널(52.3km) 구간에 인명 대피용 수직구 16개소 등 총 22개소의 대피로를 마련했고,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비상대응 훈련*을 반복 시행하여 위기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를 확립하는 등 안전관리 체계를 확보했다.

* '16.9.6(화) 화재상황을 가정한 비상대응 실제훈련, 10.18(화) 탈선사고 가정 유관기관 합동 CPX, 11.8(화) 탈선사고 가정 유관기관 합동 종합훈련 등을 실시했다.

□ 아울러, 신규역사인 수서역, 동탄역, 지제역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고속철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타 교통수단으로 환승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시공하였다.

① 수서고속철도의 시·종착역인 수서역은 서울의 새로운 관문 역할을 할 것이며, 지하철 3호선·분당선과 환승 연결통로가 한 층에서 바로 연결되어 지하철 이용이 가장 편리한 역사로 만들어졌다.

② 동탄역의 경우 향후 개통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와 역사를 함께 활용하도록 만들어졌으며 국내 유일의 지하 고속철도 역사이다.

- ③ 1호선 지체역사와 나란히 만들어진 고속철도 지체역 역시 수서역과 마찬가지로 환승이 편리하며 경기 남부 지역의 새로운 관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.

국토부는 개통준비 과정에서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버스노선의 조정과 신설을 비롯하여 역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연계교통 체계 구축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.

- 수서고속철도 개통 준비는 차질이 없이 진행 중으로 11월 1일부터 영업시운전(11.1~11.30)에 돌입하였고, (주)SR이 운영역량을 검증 받고 보완할 수 있도록 승차권 구입부터 승하차 전 과정을 실제와 똑같이 구현하는 ‘이용자 평가훈련’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.

- 총 6만여 장의 평가단 승차권이 성공적으로 예발매되었고, 평가단을 신청한 사람들은 영업시운전 기간에 SRT 열차에 탑승하여 SRT 서비스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다.

- 12월 9일 이후의 (주)SR, 코레일 승차권 예매는 11월 22일(화)부터 시작된다.

- 수서고속철도 개통을 통해 우리나라 철도교통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 하게 된다.

-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12월 9일 개통 시까지 수서고속 철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검증해 나가는 한편, 승차권 예발매 등 서비스 전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·보완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.

- 아울러, 최초로 도입된 경쟁체제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, 개통 이후에도 경쟁체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·추진할 계획이다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김광림 사무관(201-4636), 임승규 사무관(396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